중국의 역사적 통합전략, 집합지식과 일대일로*

차창훈(부산대학교 교수)

국문요약

이글은 중국의 통합과정에서 작용했던 문화적 요인을 집합지식(collective knowledge) 개념을 사용해서 해석한다. 집합지식은 공통 지식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별적인 행동에서 거시차원의 패턴을 창출하는 지식구조를 말한다. 하늘의 명을 받은 자가 하늘의 아들(천자)이 되어 정치공동체를 통치한다는 천명사상과 함께 천자국의 권위가 확립되었다. 천자국과 중화의 집합지식은 통합의 논리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영토를 확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주변의 이민족이라도 정복을 통해서 천자국이 된다는 집합지식이 세대를 걸쳐서 형성되었고, 장구한 시간 동안 일정한 구성적 효과를 가졌다. 근대 국제질서 체제에서 왕조가 아닌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갖게 된 중국은 더 이상 천자국 중화의 집합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통합전략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주변국들은 이익공동체를 넘어서는 운명공동체이며, 이는 4가지의 기본 규범들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규범들은 집합지식이 통합의 논리로 작용했던 중국 제국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주제어: 천자국, 중화, 집합지식, 중국의 통합, 통합과 분리, 일대일로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472).

www.kci.go.kr

Ⅰ. 들어가며, 정치공동체의 통합과 분리

1949년 건립된 현대의 중국은 22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중경)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국경선은 청(淸) 후반기의 국경선과 거의 일치한다.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의 공식 인구는 14억이다. 이 인구는 13억의 한족(漢族)과 약 1억 가량의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 지역의 면적은 총 616만㎢로서 전체 국토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공동체 혹은 근대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인과 조건으로 하나의 단위로 형성되었는 지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 오지 못했다. 예를 들면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는 매우 상이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유럽대륙의 경우 민족을 단위로 하는 많은 근대국가가 형성된 반면, 우리가 중국대륙으로 부르는 그 지리적 공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커다란 영토를 차지하며 형성되었다. 구한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쟁탈전이 없었다면 한반도도 유교문명권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작은 공동체들은 큰 공동체로 확대되었으며, 반대로 큰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로 분리되기도 한다. 유럽은 하나의 커다란 기독교 공동체가 정치적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 개별 왕조들이 민족 단위의 공동체로 분리되며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했다. 중국의 경우는 수많은 다양한 종족집단들이 오늘날 '중화(中華)'라는 집합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현재 중국의 인구 구성대로라면 14억의 한족이 1억의 소수민족을 통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평가일 뿐이다. '통합'의 개념을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의 확대로 보고, 통합 개념의 정치를 '아와 비아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13억의 한족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한족(漢族)'이라는 대아의 형성으로 귀결된 것일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의 역사는 작은 우리가 큰 우리로 통합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1)]

www.kci.go.kr

어떠한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는가는 이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유럽은 서로 다른 민족 공동체들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오랜 역사적 시간 동안 분리되어 존속하였다. 유럽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이유로 중국 대륙은 통합의 길을 걸었는가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한족(漢族)의 기원과 뿌리는 중국의 중부와 남부에 거주했던 화하족(華夏族)에서 찾을 수 있다.[2] 화하족(華夏族)이라는 명칭은 춘추전국시대(春秋時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족(民族)의 명칭으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진(秦. BC 221-206)의 진시황(秦始皇)이 춘추전국시대(春秋時代)를 마감하고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을 불완전 통일하면서 화하족은 부단히 주변의 여러 족속과 혼혈(混血) 융합하는 과정을 밟아 성장 발전을 하였다. 한(漢. BC202-AD220)의 유방(劉邦)이 중국대륙을 최초로 완전히 통일하면서 드디어 한족(漢族)이 형성되었다. 한족(漢族)은 오늘날의 섬서성(陝西省) 황하 유역을 근거지로 기원후에도 끊임없이 사이(四夷) 즉 동이(東夷). 남만(南蠻). 북적(北狄). 서융(西戎)과 충돌 교섭하는 사이에 그들을 흡수하고 동화시켜 민족적으로 발전·팽창의 과정을 밟았다.

중국대륙의 통합은 전쟁을 매개로 하는 점령과 팽창 그리고 흡수와 동화의 과정이 지속한 결과로 이해된다.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경제공동체와 중앙 정치조직으로의 편입이 장구한 세월 동안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의 경우는 유교문명이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했다는 점이 학계의 일반론이다.[3] 다시 말해서 문화적 정체성이 한자(漢字) 텍스트와 유교라는 사상을 공통분모로 단일화되는 과정과 정치·경제적 공동체가 중심을 기점으로 외곽으로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글은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던 과정을 집합지식(collective knowled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중국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의 경우와 달리

1) 아와 비아의 헤게모니 관계에 대해서는 김학노,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p. 31~44.
2) 임병덕, 『중국고대문명의 기원과 전개』, 대전: 문경출판사, 2003, pp. 71~94.
3)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www.kci.go.kr

통합의 길을 걸었던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공동화되는 통합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글의 두 번째 목적이 추가된다. 현대의 중국은 2013년은 국가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 글은 앞서 다루는 중국사가 통합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중국은 서구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대일로는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대전략으로 제시되었지만, 기존의 통합전략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한계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의 논리를 형성했던 집합지식의 개념을 통해서 중국사를 기술한다.

Ⅱ. 집합지식과 중국의 통합 메커니즘

1. 집합지식의 구성적 효과

현대 중국은 작은 정치공동체들이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커다란 정치공동체를 형성한 통합의 결과이다. 서로 다른 민족으로 분리되어 발전한 유럽의 역사적 경로와 비교해 보면 통합된 단일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낸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대한 중국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서로 다른 지형에서 격리되었던 공동체들의 상호작용이 왜 유럽과 중국의 사례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물론 이 단순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란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그 빈도와 정도에서 차이가 났을까? 유럽과 중국에서 발생한 전쟁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 대답은 옳지 않다. 역사가들은 중국에 존재했던 일체화된 문화적 정체성에서 해답을 찾는다. 한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찍이 발전했던 유교 사상 혹은 도교 사상이 부여한 공통의 정체성이 중국 대륙에 편재했던 이질적인 민족을 하나로 묶었고, 관료제라는 정치행정조직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면서

www.kci.go.kr

중국 역사가 유럽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평가한다. 한자와 유교사상이 중국사에서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문화적 토양에서 작용했던 어떠한 연역적인 논리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물질의 현실에서 작용하는 관념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 관념이 공유된 관념의 의미를 갖게 될 때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유된 관념이 현실 세계에서 갖는 힘을 주목한다. 사람들의 집단행동은 물질적 힘에 부여하는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며, 그 의미가 공유될 때에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형성하는 문화적 측면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매개되는 의미에 기반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공유되는 어떠한 관념이 선행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웬트는 이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았고, 이 공유된 관념을 '공통지식(common knowledge)'과 '집합지식(collective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4] 공통 지식은 상대방의 행위가 합리성에 기반할 것이라는 예측, 전략, 선호도, 외부세계 상태에 대한 신념 등을 포함한다. 이 신념들은 반드시 진실할 필요는 없고, 구성원들이 진실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공통 지식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A라는 주장을 신봉하고, 구성원들이 A라는 주장을 신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A는 공통 지식이 된다. 이때, 단순히 공통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 이상으로 이 공통 지식은 서로 맞물리는 연동장치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공통 지식은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성격을 갖는다. 규범, 규칙, 협약, 이념, 관습, 법 등과 같은 특정한 문화적 형태는 모두 공통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분석은 공통 지식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규범이나 국제법과 같이 특정한 공통 지식이 초래하는

4) Wendt, Alx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57~165.

www.kci.go.kr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웬트는 공통 지식과 집합지식을 구분한다. 집합지식은 공통 지식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별적인 행동에서 거시적 차원의 패턴을 창출하는 지식구조를 말한다. 일례로 자본주의, 베스트팔렌 체제, 인종차별 정책, 자유무역 레짐 등이다. 집합지식은 행위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신념을 갖게 함으로써 유지되고, 이 특정 행위를 통해서 결국 어떠한 구조가 재생된다. 이를 집합지식의 구성적 효과(constitutive effect)라 한다. 집합지식의 구성적 효과는 개인의 신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집합지식의 구성적 효과는 단순히 어느 시간대에 개개인들이 지니는 공유된 신념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사회화와 관례적 제정 과정을 통해 세대 간에 전수되는 역사적 현상이다. 이러한 기억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해도 집단은 영속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지식은 집합적 행위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의 역사에서 정치공동체들이 천자국을 중심으로 생성 및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 지식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 공통 지식은 역사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의 거시적인 차원의 패턴을 형성했고, 이 패턴이 서구와는 달리 정치공동체의 분절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중화(中華)'라는 집단 지식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단순히 어느 시간대에 개개인들이 지니는 공통된 신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화와 관례적 제정 과정을 통해서 세대 간에 전수되는 역사적 현상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중국사에서 통합의 과정에 지대한 구성적 효과를 가져온 집합지식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천자국(天子國)과 중화(中華), 중국의 통합 메커니즘

중국의 역사과정에서 통합의 구심력으로 작용한 연역적 논리는 집합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중심의 천자국 국력이 취약해지면, 제후국이 굴기하고 분리하려는 원심력이 증대한다. 중국사에서 새로운 왕조 건립은

www.kci.go.kr

결국 제후국들과 천자국의 물리력 충돌의 결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제후국이 새로운 천자국을 선포한 것을 의미한다. 천자(天子)란 하늘의 아들이란 뜻으로 천자국임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명분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했다. 맹자의 역성 혁명론은 새로운 천자국의 건립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천자-제후-경대부의 질서는 새로운 천자를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다시 수립된다.

통합의 구심력은 물리적인 군사력에 기반하지만, 문화의 수용과 동화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통합은 유학의 교리, 관료제와 같은 정치제도, 사회 경제 제도, 언어(한자)와 사상(유교) 등을 매개로 공통의 정체성을 이루는 실질적인 통합으로 완성된다.[5] 문화의 외연 확대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학과 한자 문명과 같은 문화적 요인은 중심에서부터 외연으로 확대되면 주변의 이질적인 종족이나 집단들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예를 들면 당나라는 주변의 종족들에게도 과거제도를 개방하여 정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6두품의 신분질서에 좌절을 느꼈던 신라 시대의 최치원이 당나라의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관리생활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합의 역사적 선순환 구조의 결과는 천자국(한족)의 외연 확대이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역사적인 구성 효과로 이해된다. 영토적으로는 청대에서 완성된 오늘날 국경선에 이르렀고, 인구로는 약 13억의 인구가 스스로 한족이라 믿고(동화되어) 있는 외연의 확대를 이루었다. 몽고족(원)과 만주족(청)의 경우처럼 이질적인 종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했을 경우에도 그들은 스스로 중국 문명에 동화되어 갔다. 통합의 구조적 요인은 군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면적 요인은 중국의 왕조 교체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중국의 전략 문화(strategic culture)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이다. 이

5) King Fairbank, John,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19.

www.kci.go.kr

와 관련하여 중국의 유교 문화는 무력 사용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을 선호해왔다는 주장(Confucian pacifism)과 주변국에 무력을 사용하는 호전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주장(Cultural realism)이 양립해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국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국력을 키우면서 일시적인 외교적 수단을 모색했다는 주장이 있다.[6)]

주변의 이민족이라도 정복을 통해서 천자국이 될 수 있다는 집합지식이 세대를 걸쳐서 형성·전수되었고, 장구한 시간 동안 일정한 구성적 효과를 가졌다. 아울러 이민족은 자신의 명명한 나라가 중앙의 천자국이 되고, 다른 문화인 한족 문화에 스스로 동화되었지만, 정치적 정통성을 의미하는 천자국의 권위를 갖는다는 인식도 계승되었다. 새로운 이민족들이 힘을 키워 중앙인 천자국을 정복하더라도 중화(中華)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간적으로 중심에 자신을 위치지으면서 이 중화의 천자국을 주변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이질적인 이민족은 분리되어 각각의 지리적 공간에 편재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고(유럽의 역사와는 다르게), 중국 대륙의 천자국은 중앙을 기점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확대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족을 구성하는 인구의 수는 다른 민족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가며 증가하였고, 한자와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문화는 확대되고 보편성을 획득해 갔다. 이러한 연역적 논리는 하나의 집합지식을 형성하면서 거시적인 구조와 패턴을 재생산하였고, 중국 역사에서 왕조 중심의 역사를 근대 이전까지 구현했다. 이상 기술한 중국사에서 구현된 집합지식의 규칙을 간략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중국 역사에서 작용한 집합지식의 규칙

○ 중앙의 정치공동체(中國) '천자국' A는 '하늘의 아들(天子)'이 통치하는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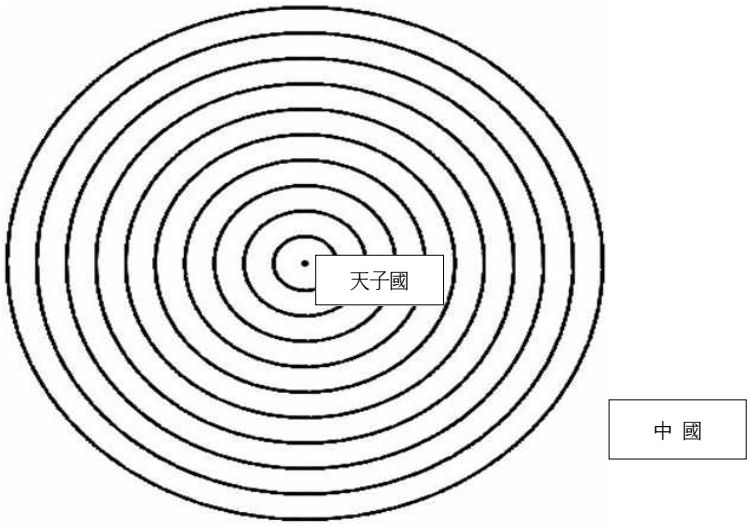
6) Wang, Yuan-Kang, *Harmony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Iain Johnston, Alastair,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95.

www.kci.go.kr

○ A가 쇠락하고 제후국 B가 흥해서 A국을 정복하면 B국은 '천자국'이 되고, B국의 왕은 자신을 '하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 '천자국'(혹은 새로운 천자국)은 제후국들을 수와 영토를 확대해 나간다.
○ 이 집합지식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무한히 반복된다.

- 집합지식의 작용 효과

중심에서 외연 확장/ 영토 확장, 대국화
조공과 책봉 제도
자민족중심주의(중화 민족주의)
중심 → 주변　　수직적/위계적 질서



천자국과 중화의 집합지식은 통합의 논리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영토를 확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의 경우 조선시대에 이르러 천자국 명(明)으로부터 조공과 책봉의 질서에 편입되어 제후국이 될 것을 강요받았다. 위와 같은 집합지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는지를 사료

www.kci.go.kr

를 통해서 실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 이 글에서는 시론적인 의미로 위와 같은 논거를 다음 장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집합지식 적용의 역사적 논거

1. 주(周)나라, 천자국의 확립

다른 국가들과는 격이 다른 천자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후국이 경쟁하고 영멸해가는 이 체계는 주나라때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713년 노나라, 제나라, 정나라가 함께 오늘날 산동성 제녕현 북쪽으로 송나라를 공격하고, 정나라 군사가 산동성 성무현 동남쪽 땅을 노나라에게 획득하고 노나라에게 돌려주었다. 공자는 『춘추』에서 제후국들과의 전쟁 상황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했다.

> "정장공은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천자의 명으로 천자에게 조근하지 않는 자를 친 뒤 송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고 작위가 높은 노은공에게 주어 그를 위로했다. 이는 정치의 이치에 합당하다고 하겠다."[7]

공자는 천자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천자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진 위계적인 서열에 부합하는 정나라의 노나라에 대한 토지 부여를 온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춘추의 기록은 중국 대륙에서 주나라 시기에 이르면 주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천자의 질서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공자가 『춘추』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쟁과 갈등 상황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와는 격이 다른 제후국 간의 분쟁이다. 주나라의 권위가 형성된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까지 이루어낸 예(禮)법의 문명이 주나라에서 완성되었고, 이를 표준으로 주변국들

7)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서울: 한길사, 2006, p. 68.

www.kci.go.kr

과 후대의 제후국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의 경우와는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럽에서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교황청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보호해줄 세력으로 동로마제국에 의탁하고, 후에는 샤를르마뉴 대제의 보호를 받고 그에게 정치적 권위의 신탁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로마교황청은 종교적인 의미의 구심점이기만 할 뿐 세속적인 왕정의 국가 간의 분쟁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로마교황청이 주나라의 경우처럼 봉건국가 간 세속정치의 영역에서 중심의 구심점을 형성하지는 않은 것이다. 주나라는 정신적인 권위와 함께 동시에 하나의 세속적인 의미의 정치체(polity)였다. 겉으로 보기에 별반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이 차이가 후대의 역사로 전개되면서 매우 다른 구성적 효과로 귀결되었다.

『춘추』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는 기원전 745년에 이미 크고 작은 정치공동체와 개인에 이르는 위계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었다. 이러한 질서의 규범은 공자로 상징되는 정치사상가의 저술에서 체계화되었는데, 다음의 구절은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 "제후국을 세울 때 본국을 크게 하고 봉국을 작게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나라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자가 제후국을 두고, 제후가 경대부를 두고, 경이 측실을 두고, 대부가 이종(대부의 장자를 소종, 차자를 이종이라 함)을 두고, 선비가 예자제(잡역하는 자제)를 두는 것이다. 서인(농민)이나 상공인도 각각 친소에 따라 분가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두 차등이 있다. 이로써 백성은 마음을 다해 윗사람을 섬기고 윗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게 된다. 지금 진나라는 전복(甸服)의 제후국이다."[8]

당시 중국대륙에서 정치질서를 생각하는 방식은 천자를 중심으로 제후, 경

8) '전복'은 왕기로부터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왕조는 왕기(王畿)의 1천리 밖에 5백리 단위로 후복과 전복, 남복, 채복, 위복, 요복 등 6복을 두었다. 그 외의 지역은 이복, 진복, 번복, 등 3복의 이민족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 위의 책, p. 84.

www.kci.go.kr

대부, 대부, 선배 등의 계서적인 신분질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춘추』에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등장하는데, 공자의 모국인 노나라를 비롯해서, 송, 기, 정, 고, 식, 제, 곽, 진, 예, 채, 위, 괵, 조, 수, 초, 주, 파, 양, 순, 가, 운, 거, 교 등 수많은 나라가 오늘날 중국의 행정구역인 현(縣)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영토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전쟁, 결맹 혹은 화친의 형태로 명멸해갔다. 고대 유교문명권에서 외교란 천자국을 제외한 단위들 간의 사교(私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춘추』에서 '경외지교(境外之交)'란 자신이 충성하는 군주를 벗어나는 범위의 교제를 의미하고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즉 신하들의 사사로운 대외교제를 금지하였다. 또한 『예기(禮記』에서도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라 해서 신하는 오직 자신의 군주만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제후국들은 경쟁과 전쟁으로 생성 소멸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유럽의 경우처럼(예를 들면 로마 문명 소멸 후 프랑코 문명 등) 독자적으로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문명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문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천자국(周나라)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주나라는 유교문명의 중요한 기반인 윤리 도덕적 내용의 종법제도와 정치적인 봉건 제도인 분봉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위계질서는 강제적 혹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예(禮)라는 규범으로 제어하고 규제하였다. 따라서 주나라 이래 중국 문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질서를 주나라를 모범으로 회복하자는 환원론적 사고가 잉태되었다.

기원전 중국대륙에서는 천자국을 중심으로 일찍이 구조화된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다. 이제 문제는 특정한 천자국(예를 들면 주나라)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주나라의 멸망에 따라 주나라를 대체하고 천자의 권위를 계승하는 새로운 천자국에 대한 집합적 인식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다. 이는 주나라가 멸망해도 다른 고유명사의 새로운 왕조(예를 들면 주를 계승하여 중국을 통일한 陳)가 수립되어도 일반명사의 의미를 갖는 천자국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믿음이 수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www.kci.go.kr

2. 예악(禮樂)과 역성혁명, 순환적 외연 확대의 출발

사마천은 그의 『사기(史記)』 본기편에서 중국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여덟 명의 제왕을 삼황오제(三皇五帝)라 한다. 삼황은 헌원씨, 복희씨, 신농씨이고, 오제는 황제, 전욱, 곡, 요, 순을 말한다. 사마천은 삼황을 실재하지 않은 전설로 보고 『사기』에서 오제부터 다루었다. 그는 왕조의 교체에서 물려주고 양보한다는 의미를 갖는 '선양(禪讓)'을 정치의 본보기로 간주했다. 선양은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공천하(公天下)'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위를 사유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선양은 요순대에 실현되었으나, 제위를 물려받은 우가 하(夏) 왕조를 세운 이후로 세습군주제도가 굳어졌다.[9)]

『사기』에는 새로운 왕조의 개국 명분으로 '하늘의 명(天命)'이 등장한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의 주왕 토벌을 결정할 때(기원전 1050년) 그리고 600년 전 상나라 탕왕이 하나라의 걸왕을 공격할 때(기원전 16세기), 모두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존 왕이 저지른 폭정의 죄를 벌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기록했다. '하늘의 뜻', 즉 천명을 믿는 관념이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는 관습이 수립되어간 것이다. '혁명(革命)'이란 용어도 천명과 함께 생겼다. '혁'이란 고치다 혹은 바꾸다의 뜻인바, 혁명이란 낡은 천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전국 시대 제나라 선왕의 상 탕왕과 주 무왕의 왕조교체를 위한 토벌 사건에 대하여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는 군주에게 인(仁)이 없는데 신하가 의(義)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역성혁명의 논리를 옹호했다.

하늘의 명을 받은 자가 하늘의 아들(천자)가 되어 정치공동체를 통치한다는 천명사상과 함께 천자국의 권위가 확립되었다. 이 생각이 표준으로 정립되는 과정 역시 필요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예악(禮樂)을 제국의 이상적인 질서

9) 천퉁성 지음, 장성철 옮김,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 서울: 청계, 2004, pp. 35~61.

www.kci.go.kr

확립을 위한 이념적, 제도적 방편으로 보고 「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예악은 유가 정치 윤리 사상의 핵심인 바, 이 둘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모두 상하의 관계를 조율하고 종법 사회를 유지하는 초석이다. 사마천은 예는 사람의 성품에 근거하고 수식을 더하고 대략 고급의 변화에 어울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예가 천하의 인심을 통일하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에 치국의 방법으로 예를 주창했다. 그는 하, 상, 주 3대의 예의 증감을 고찰하였는데, 공자를 비롯하여 후대의 모든 지식인들은 주나라의 예법을 가장 이상적인 표준으로 간주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질서에서 주나라의 예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치와 윤리의 중심이 예로서 확립되었고, 현실 세계의 정치공동체는 천명을 받은 천자국을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중국대륙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주나라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중심에서 외연으로 확장될 개연성을 갖게 되는 강력한 형태의 집합지식이 확립된 셈이다. 천자국과 중화라는 집합지식이 역사가 되풀이되면서 거시적인 패턴으로서 중국사의 통합 논리로 작용했다. 여러 개의 분절된 정치공동체가 각축하는 형태가 아닌 천자국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구성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중국사는 이러한 왕조 순환의 외연적 확장이 청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고, 중국대륙을 하나로 묶으면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제국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붕괴하였다.

역사를 관념인 '자유의 실천'으로 이해했던 헤겔은 중국사를 서구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이 황제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며 오직 한 사람만(천자)이 자유로운 동양적 국가의 전형으로 묘사했다. 그는 중국의 운명을 그 광대한 크기 때문에 유럽과 격리되었고, 토지의 한계를 넘어 바다 밖으로 뻗어 나가려는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헤겔은 중국이 영원히 지리적 고립상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며, 그것은 중국의 역사가 타자에 의해 중국의 존재가 추구되고 중국의 성격이 탐구될 때만 발전할 수 있다고 모호한 설명을 덧붙였다.[10] 19세기 서구열강들은 선박과 외교사절 그리고

www.kci.go.kr

아편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다. 중국은 이들에 의해 분열되었고, 1949년 수립된 현대 중국은 새로운 통합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어야 했다.

Ⅳ. 일대일로와 새로운 통합전략

1. 근대의 중국, 통합의 집합지식 상실?

근대를 기점으로 중국 역사에서 통합의 집합지식 효과는 멈추었다. 아편 전쟁의 패배로 시작된 중국의 서구 국제질서관의 수용은 헨리 휘튼의 저서인 국제법의 요소(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번역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화를 위한 청의 다른 시도와 노력처럼 중국은 서구가 제창하고 이식시킨 새로운 국제질서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통합의 중국 역사를 지탱했던 집합지식의 논리는 힘을 잃어 갔고, 중국은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청조 말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시작된 제국 체제의 균열로 태평천국(太平天國)이나 백련교도(白蓮敎徒)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원심력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유입된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력도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의 통치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변경지역에서의 통제력을 점차 상실해 갔다. 결국, 청조의 붕괴와 신해혁명으로 다양한 군벌(軍閥), 제국주의 열강, 정치 및 사회세력 등으로 중국 전역은 혼란과 분열의 양상이 격화되었다. 왕조의 멸망 직전 청은 다수의 이질적인 민족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변경지역에 새로운 성(省)을 건설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신장과 티베트가 그 대상이었고, 만리장성 이북의 동북 3성 지역도 이러한 노력으로

10)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1』, 서울: 이산, 2002, pp. 172~173.

www.kci.go.kr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국제법상의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11] 그러나 티베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상실, 망명 정부의 존재 등으로 티베트의 작은 공동체로의 분리 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력 그리고 소수민족의 근대적 의식의 자각으로 변경지역에서 작은 공동체들의 독립을 지향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신장의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그리고 이 시기 상대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지위를 누렸던 티베트 독립 선언이 그것이다.[1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족 자치에 입각한 소수민족 정책을 추진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크게 마오쩌둥 시기의 동화 정책과 덩샤오핑 시기의 관용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지방 정부의 핵심 책임자는 한족이 독점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으로의 한족 유입과 개혁개방 시기 발전주의 정책은 신장과 티베트의 인구통계학적 지도를 변화시키고 생활 수준을 개선시켰다. 그러나 신장과 티베트의 분리주의 시위는 각각 다른 양상을 띤 채 지속되었고, 개발의 그늘에 가리워진 이 지역의 박탈감이 작은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한 큰 우리의 통합 노력은 한계에 직면해 왔다.

중국 대륙 내부에서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 즉 '큰 공동체'를 지향했던 두 세력인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은 결국 공산당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1949년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립되었다. 패전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주했고, 작은 공동체인 타이완의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분리는 미국 등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을 제공해 왔으며, 양안 관계는 일국양제와 일국양구라는 상이한 접근방법의 통합정책으로 대립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타이완의 분리 독립 시도는 양안 관계를 군사적 충돌로까지 야기한 주요한 분쟁 요인이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급격하게 진행

11)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위의 책, pp. 181~318.
12) 이에 대해서는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서울: 혜안, 2003; 제임스 A. 밀워드 지음, 김찬영·이광태 옮김, 『신장의 역사: 유라시아의 교차로』, 서울: 사계절, 2013.

www.kci.go.kr

된 경제적 통합은 타이완의 분리 시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은 큰 공동체인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온전하게 통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은 작은 공동체의 분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통합은 신장과 티베트와는 달리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의 분리가 뚜렷하지 않아서 경제적 통합의 정치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인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 경제적 발전주의를 모델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가들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통합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새로운 차원의 통합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근대 국제질서 체제에서 왕조가 아닌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갖게 된 중국은 더 이상 천자국 중화의 집합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통합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 통합전략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하는 현대 국제질서 체제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가 통합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더 이상 통합을 가능케 했던 천자-제후국의 집합지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대일로는 국가발전의 목표와 함께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극대화하고 변방의 분리주의 움직임도 불식시키려는 새로운 전략이다.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즉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이 2013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중국정부는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일대일로의 주요 이론들과 주요 계획들을 발표했다.[13] 일대일로 계획은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함하는, 중국과 60여개

13) 이 구상은 2015년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및 상무부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 3. 28. 일대일로에 관해서는 Cha, Chang Hoon, "China's Westward March: One Belt, One Road from Strategic View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3, 2017, pp. 483~500.

www.kci.go.kr

국이 연결되는 거대한 육지-해양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이다. 현 상황에서 본다면, 일대일로 계획은 전세계 GNP의 55%, 전 세계 인구의 70% 그리고 에너지 비축량의 75%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마스쿠스부터 뤄양으로 이어진 대상들의 도시들, 긴 낙타들의 행렬, 범접할 수 없는 산맥들 그리고 끝없는 사막과 같은 로맨틱한 이미지를 가진 고대 유라시아 대륙의 교역로를 떠올리게 한다. 위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문건은 장기간에 걸친 중국 내에서의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 간 광범위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대전략(grand strategy)이자 '서쪽으로의 개방정책'으로 인식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동부 해안지역은 수출입에 유리한 지경학적인 이점을 활용해 중국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자원과 노동력은 동부 해안지역으로 집중되었고 이러한 개발의 불균형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산업의 생산과잉을 재조정하고, 핵심 부분에서 채무를 줄이며, 미화 3.5조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보다 생산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서부와 동부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중국은 12개의 성과 지역, 도시들을 포함하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서부대개발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이 명확히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서부대개발 전략이 대내적인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일대일로 계획은 대내적, 대외적 전략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서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방전략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육로 연결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공항을 비롯한 국경 간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일대일로 계획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항구시설의 현대화, 항만구역의 건설 그리고 운송네트워크의 완비를 목표로 하며,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와 경제구역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의 경제적 재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14)]

중국의 경제는 현재 '뉴 노멀(新常態)'인 급속한 성장에서 완화된 성장으로

www.kci.go.kr

전환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적이고 국외적으로 새로운 경제력에 기반한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경제에서 새로운 개척지는 개발도상국들이며 중국의 북쪽, 남쪽 그리고 서쪽 지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들이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중국의 지역들은 사회기반시설이 전무하며 산업생산 연계도 매우 취약하다.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과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잠재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프로젝트에서 투자금, 설비, 기술과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 지구를 발전시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새로운 통합전략의 의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공동건설에 대한 전망과 실행'이란 문건은 일대일로 계획의 연대 책임과 자원 및 이익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계획은 5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정책소통(政策溝通): 경제개발전략과 정책의 조정, 계획과 평가의 실행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 제공
- 시설연통(施設聯通):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 건립을 통한 연결성의 증대와 기술적 표준의 건설 계획 및 시스템의 통합
- 무역창통(貿易暢通): 투자와 무역설비의 증대 그리고 건실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및 무역장벽 철폐

14) Godement, Francois, "One Belt, One Road: China's Great Leap Outward." *China Analysi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2015. Dollars, David, "China's rise as a regional and global power: The AIIB and the one belt, one road." *Horizons*, summer 2015, Brookings Institution. Downs, Erica, "Mission Mostly Accomplished: China's Energy Trade and Investment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China Brief*, March 19, 2015.

www.kci.go.kr

- 자금융통(資金融通): 통화안정시스템의 건립, 투자 및 금융 시스템, 신용 정보 시스템, 통화 스왑 및 조정 시스템 그리고 발전된 채권 시장 건립을 통한 금융 협력 증대
- 민심상통(民心相通): 대중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 및 학술 교류, 인적 교류 및 협력, 대중 매체간 협력, 학생 및 여성 교류 및 자원봉사 서비스의 촉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다.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에 관한 주장은 국제 금융 질서에서 커다란 논쟁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중국의 반대전략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 개회식을 하고 AIIB의 설립을 선언하고 진리췬이 5년 임기의 초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유럽연합, 한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를 포함한 57개국이 창립회원국이며, 공식적으로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의 출범을 선언했다. 중국은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을 2114년까지 조성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2015년 5월 9일 일대일로와 관련한 합의를 체결하였다.[15]

일대일로는 국내 경제발전의 목적에서 착안된 것이지만, 21세기 중국의 세력전이를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정학적인 정치지형을 변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일대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의 포위에 맞서는 헤징전략이라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다. 서쪽으로의 대장정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대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일대일로의 비전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얽혀 있으며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16]

15)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rticle of Agreement. http://www.aiib.org/html/aboutus/basicdocuments/AOA/?show=2 (검색일: 2018.10.24.).

16) Yiwei, Wang, "How to deal with geopolitical risk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Gongshi Wang*, April 29, 2015.

www.kci.go.kr

외교와 안보 정책의 맥락에서 일대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이전 미국의 외교정책과 닮은 측면이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산물인 먼로 독트린이란 유럽의 세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했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경제 및 정치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미국이 19세기에 걸쳐 이러한 주변국 관계를 정립해 나아갔듯이, 중국몽과 국제체제에서 강대국 부상의 실현하면서 중국은 주변국들과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일대일로는 전후 일본과 서유럽의 발전을 이끌었던 냉전 정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 및 서유럽 중심의 대외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서 가장 번영했던 국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적극 지지했던 동맹국들이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군들을 창출하려고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일치한다. 2013년 일대일로 천명 후 중국은 7명의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변외교를 논의하는 의사구조를 만들었다. 중국의 주변외교를 논의하는 최초 및 최고의 논의구조는 향후 5-10년 동안의 전략 목표, 기본 원칙 등을 결정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주변국들은 이익공동체를 넘어서는 운명공동체이며, 이는 4가지의 기본 규범들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였다.[17] 이 규범들은 집합지식이 통합의 논리로 작용했던 중국 제국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앞서 언급했던 예약의 규범들을 현대 국가 간의 운명공동체로 명명하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관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론 과거와 같이 집합지식이 통합이 구성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경제적인 발전주의의 통합전략을 일대일로로 제시하면서도 새로운 규범들이 집합지식으로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17) "Xi Jinping: China to further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Xinhuanet*, October 26,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10/26/c_125601680.htm (검색일: 2018.9.15.).

www.kci.go.kr

Ⅴ. 소결

본 연구는 중국사에서 작용했던 통합의 연역적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중국이 통합을 위해 취했던 전략에 대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사상이 포괄하는 정치이념, 제도,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요인이 통합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물론 장구한 시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작은 우리의 정체성이 큰 우리로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큰 우리로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형성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은 중국의 통합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미쳤다. 군사적 충돌에 따른 무력에 의한 왕조 교체가 새로운 중심(천자국)이 세워짐에 따라 문화적인 단일성으로 통합을 이루고, 역사의 경로를 따라 동심원 방향으로 외연적인 확대를 이룬 것은 중국 역사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사례이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 기반이 실제로 작용했던 연역적 논리는 웬트의 집합지식의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유교문명권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상하차등적 위계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외교 또한 그러한 내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유교문명권의 자연법이라 할 수 있는 '예(禮)'규범이 통치 분야 나아가 외교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조빙은 물론 사대자소 또한 예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책봉과 조공제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는 외교업무를 예악과 교화를 관장하는 예부와 예조에서 담당하였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된 자오팅양(趙汀陽)의 천하체계는 중국적 대외관념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거시전략의 실천을 담고 있어 보인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개별 국가의 단위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커다란 천하의 개념에서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은 위계적인 관계망을 갖는다. 이 수직적인 관계망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제시되는데, 유교문명권에서 조빙(朝聘)과 사대자소의 규범이 제시되었듯이, 일대일로의 경우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규범으로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 제시되었다.

www.kci.go.kr

셋째, 현대 중국은 더 이상 유교문명권의 윤리 규범이 작용하는 집합지식으로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미 근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질서가 수립되었고, 중국도 이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방식의 통합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규범을 제시하면서도 이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제시되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해서 중국 외곽의 분리주의 운동을 잠재우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전체 역사과정을 보면 중국은 통합의 경로를 밟아 왔다고 판단되지만, 세부적인 개별 경로(예를 들면 청→근대 시기)에서는 통합의 구심력과 분리의 구심력이 상호 충돌하기도 하였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새로운 통합전략의 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단하기에 아직 이르다. 과거 천자국 제후의 집합지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통합의 구성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집합지식을 대체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새로운 통합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대일로의 전략은 정치경제적 발전주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집합지식을 형성하려는 규범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특색의 통합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새로운 구성적 효과의 미래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이행 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학노,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서울: 혜안, 2003.
임병덕, 『중국고대문명의 기원과 전개』, 대전: 문경출판사, 2003.
제임스 A. 밀워드 지음, 김찬영·이광태 옮김, 『신장의 역사: 유라시아의 교차로』, 서울: 사계절, 2013.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1』, 서울: 이산, 2002.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 서울: 한길사, 2006.
천퉁성 지음, 장성철 옮김, 『사기의 탄생: 그 3천년의 역사』, 서울: 청계, 2004.
Cha, Chang Hoon, "China's Westward March: One Belt, One Road from Strategic View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3, 2017.
Dollars, David, "China's rise as a regional and global power: The AIIB and the one belt, one road." *Horizons*, summer 2015, Brookings Institution.
Downs, Erica, "Mission Mostly Accomplished: China's Energy Trade and Investment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China Brief*, March 19, 2015.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Godement, Francois, "One Belt, One Road: China's Great Leap Outward." *China Analysi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ne 2015.
Iain Johnston, Alastair,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95.
King Fairbank, John,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Wang, Yuan-Kang, *Harmony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Wendt, Alx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Yiwei, Wang, "How to deal with geopolitical risk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Gongshi Wang*, April 29, 2015.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rticle of Agreement*. http://www.aiib.org/html/aboutus/basicdocuments/AOA/?show=2(검색일: 2018.10.24.).
"Xi Jinping: China to further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Xinhuanet*, October 26,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10/26/c_125601680.htm(검색일: 2018.9.15.).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 3. 28. http://en.ndrc.gov.cn/newsrelease/201503/t20150330_669367.html (검색일 2018.9.10.).

www.kci.go.kr

Abstract

Interpreting Integration of China, from Collective Knowledge to Belt & Road Initiative

Changhoon Cha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s the cultural factor that integrates China with framework of collective knowledge, which was proposed by constructivist Alexander Wendt. Collective knowledge is more than common knowledge and creates macro-structural pattern of actor's behavior as time goes by. In China, Zou dynasty established the Heaven thought, which authorized the rule of Heaven's son in political community. The collective knowledge of Middle Kingdom and Chinese nationalism not only integrates China as one political community but also expand its imperial territory. The commonly shared belief that surrounding barbarians has entitled to rule middle kingdom even by military conquer was inherited to generations, which made constitutive effects throughout Chinese history. The collective knowledge of Middle Kingdom and Chinese nationalism do not exist any more in Modern China. Belt & Road Initiative was proposed in 2013. It is embodied in conceptualization of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nd the four basic norms of Chinese surrounding foreign policy as friendship(親), faithfulness(誠), benefits(惠), and tolerance(容). The approach reminds us of ancient Chinese imperialism and a newly adjusted common knowledge, which Chinese state wants to create in current history.

Keywords : Middle Kingdom, Collective Knowledge, Integration of China, Integration and Separation, Belt & Road Initiative

투고일: 2018년 11월 15일, 심사일: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4일

www.kci.go.kr